전남교육청, 2021 수능 시험장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

12월 3일 예정 대입수능시험 현장상황 가정

방역상황 꼼꼼하게 체크·철저한 준비 당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27일 2021 대입 수능 시험장인 무안 남악고등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해 달라진 시험환경을 점검하고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남악고에서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입 수능 시험 당일 현장 상황을 가정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전라남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수능방역 TF팀'을 운영하하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수능 시험장 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수능 운영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시험장, 별도시험장, 병원시험장으로 구분해 시행하며, 전남 도내 7개 시험지구에서 총 53개 시험장(학교)이 운영된다.

특히,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인 결과 시험실 수는 작년 대비 175실이 증가한 793실로 편성됐다.

또한, 수능 시험 1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시험장 학교에 방역을 실시하고, 비말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수험생의 책상에 방역 칸막이가 설치된다.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반드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점심시간에는 여럿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해야 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수능 시험장 방역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전남 수험생들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마무리 학습과 건강 관리를 잘해서 최상의 성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무안군, 현경중학교에 '학교마을도서관' 조성

총 사업비 8000만원 투입…11,000여권의 다양한 장서 보유

무안군은 지난 27일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현경면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마을도서관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무안군과 현경중학교가 총 사업비 8000만원(군비 5000만원, 현경중 3000만원)을 투입해 현경중학교 내 노후된 도서실을 학교마을도서관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도서관 전용면적은 135㎡(40평)으로 독서활동 공간이 넓게 조성되었으며, 현재 11,000여권의 다양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도서관은 앞으로 현경중학교 학생들의 독서수업장소와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현경중학교에서 도서관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마을도서관은 11월 초 개관식 이후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며"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도서관에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을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도서관이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민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 더욱 살기좋은 마을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마을도서관 활성화와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순회문고 지원, 독서도우미 파견 등 주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 기자

동일미래과학고,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직업교육지원사업' 성료

취업관련 역량강화교육 등 공유하는 학교 간 상생협력 사업

광주 동일미래과학고가 지난 9월 14일~10월 23일 운영한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직업교육지원사업'을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직업교육지원사업'은 광주지역 공업계 대표 특성화고인 동일미래과학고, 광주공고, 전남공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취업관련 역량강화교육 등을 공유하는 학교 간 상생협력 사업이다

지난해 9월17일 개회한 제282회 광주의회에서 발의돼 올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지원을 받아 탄생한 지역상생협력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직업교육지원사업'은 광주시에서 최초로 구상해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로서 지역 특성화고의 실정을 고려했다. 이번 사업에는 자동차 내장제 전문 '무등기업', 과자·아이스크림 전문 '해태제과', 전기전자부품 전문 '성일이노텍'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 자동차 관련산업 등 제조업 중심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특성화고 광주형 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약해 나갈 예정이다. 동일미래과학고 전영열 교사는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직업교육지원사업'은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모델이다"며 "우리 지역 우수기능인력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은태욱 장학사는 "'광주형일자리 맞춤형직업교육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기관과 학교가 상생하는 맞춤형 인턴십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및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공기업·중견기업 희망기업 직무탐방

한국철도공사, TSK워터 등 현장 견학과 졸업선배 특강 이어져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이 2020학년도 희망기업 및 공기업, 중견기업 대상 직무탐방을 9월부터 한국철도공사 전남지부를 시작으로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희망기업 직무탐방은 재학생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단과대학별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와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기업에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탐방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회차당 20명 이하로 운영하였다.

1차 실시기업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로 9월 11일, 18일 2회차에 걸쳐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직무(토목,건축) 직렬안내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차량사업소 등 현장견학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3차 직무탐방으로 10월 16일에는 TSK 워터(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를 방문하여 홍보관을 관람하고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였다.

희망기업 직무탐방은 △기업 및 직무소개 △현장 견학을 통한 체험 △인사담당자·졸업선배 특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대 졸업 후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선배들과의 현장 질의응답 시간은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순천대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은 "학생들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생생한 취업과 관련된 정보취득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준비로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대표와 인사담당자 면담을 통한 산학연계강화로 대학일자리센터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